

## 목포시 소각로 설치·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 ‘난항’

민원으로 한달 넘게 공사 중지...의혹 등 잡음도 이어져  
당초 사업계획 변경되고 완공시점 연기 등 차질 불가피  
“해명과 설득·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의혹 해소하겠다”

목포시의 현안사업들이 주민들의 민원 등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중단된 지 한달 여가 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고, 소각로 설치사업은 끝이지 않는 의혹제기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착공한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이 달맞이공원 준차와 인근 상인들의 주차장 확보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11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주차와 보행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평화광장의 구조개선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은 보행자 안전도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해변과 광장이 지니고 있는 빼어난 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서남권 최고의 도심 속 친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차장이 조성될 달맞이공원 인근 아파트와 평화광장 일부 상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는 중단됐다.

이들은 공원의 보존과 상가앞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적안을 마련,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공사 완공이 내년으로 연기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화상태를 맞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로 설치사업도 끝이지 않는 의혹 등 잡음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목포시의 쓰레기처리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목포시의 위생매립장은 매립율 98%로 만장을 앞두고 있다.

현재 매립공간이 부족해 하루 250t을 매립



목포시 매립장 상단에 압축해 보관 중인 폐기물.



목포시 평화광장 구조개선 조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압축시켜 포장한 상태로 매립장 위에 보관하고 있다.

시는 긴박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은 스톡 방식, 사업비는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의 문제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

자와 다이옥신을 다량 배출하는 스톡 방식의 문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의혹 등에 시달리고 있다.

시는 최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배경과 처리방식 선택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종식 시장은 직접 상급기관 감사와 수사의뢰 등 투명한 집행을 강조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하고, 위법한 사안은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으나 잡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목포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라면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설득을 병행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광고용복지센터 개소...전남 첫 유치

군청 별관에 센터 설치  
업무전담 직원 5명 상주

영광군과 고용노동부는 17일 전남 지역 최초로 조성한 ‘영광고용복지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 개소로 그간 각종 고용서비스 이용을 위해 멀리 떨어진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까지 찾아가야 했던 영광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이 센터는 영광군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고용센터 확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중형고용센터 설치 공모에 도전해 유치했다.

영광고용복지센터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 전남광역세일센터 업무 전담직원 5명이 상주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중



심으로 구인·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와 고용·복지 연계 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광고용복지센터가 들어선 영광군청 별관에는 일자리지원센터를 비롯해 지난해 전남에 선 처음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영광군은 청사 별관에 입주한 3개 센터를 통해 ‘고용·복지·일자리·세무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영광=서희권기자

## 광주시 “연말 숙박업소 모임 자제”...확진자 발생시 행정조치

광주시가 연말을 앞두고 지역의 호텔과 파티룸, 숙박업소에서 모임이 예상됨에 따라 지도점검에 나선 한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폐쇄 등 행정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호텔·모텔·유스호스텔 등 670여개 지도점검·방역 수칙 준수 당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확진자 다수 발생시 업체 폐쇄명령까지”

광주시 방역당국은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식당, 술집 등이 늦은시간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모텔 등에서 소모임 예약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연말은 사람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보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광주지역에는 호텔과 모텔, 유스호스텔 등 67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함께 숙박업소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업주 등을 상대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역의 경우 팬션보다는 모

텔과 호텔 등이 많아 방을 빌려 가족이나 친구 모임 형태로 예약되고 있는 것 같다”며 “소모임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티룸에 대한 방역수칙을 중대본과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실내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어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모임 참석자와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며 “업체 폐쇄명령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8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자로 인한 연쇄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께 드리는 연말선물

## “사진엽서집 나눔 이벤트”

올해 코로나19로 곡성을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드리고자 곡성 사진엽서집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소진시까지

**배송** 무료배송

**발송일** 12월말 일괄 배송

**참여 방법** 곡성군 네이버 블로그 공지사항에서 신청 접수중!  
[http://blog.naver.com/gokseong\\_love](http://blog.naver.com/gokseong_love)

**문의전화** 061) 360 - 8225 곡성군 스마트홍보팀

☆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해 주세요 (패키지 당 10장)

풍경편  
곡성 풍경사진 10장 묶음

장미편  
어여쁜 장미사진 10장 묶음


